

Project_NoA

SCENARIO

노치영과 아이들

팀 프로젝트

목차

1. Chapter 1.	
---------------	--

Chapter 1 - 튜토리얼

#오프닝

‘신은 7번의 아침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악마는 6번의 밤으로 세상을 멸망시켰다.

익숙한 천장이다.

제발 아니길 빌었지만, 이 빌어먹을 세상은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다.

세상의 자원은 바닥을 보였고,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다른 차원에서 채우고자 하였다.

자신들의 업보는 청산하지도 않은 채, 또 다른 업보를 쌓았다.

차원을 열고 욕심을 채웠지만, 신은 그들을 한번 봐주는 듯 했다.

하지만 신의 관용에도 인간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또 다시 다른 차원에 손을 댄 인간, 이번에 신은 봐주지 않았다.

해가 멀쩡히 떠있는 광명의 시간이었음에도 밤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어둠은 한순간에 모두의 시야를 빼앗았고, 한순간에 광명을 돌려주었다.

허나 어둠이 돌려준 건 빛뿐만이 아니었다.

인간들의 업보, 그 대리인 ‘악마’가 세상에 나타났다.

악마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멸망시켰다.

‘여섯번의 밤’, 여섯 차례나 찾아온 밤은 여섯번에 걸쳐 악마를 이 세상에 불러왔고,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했다.

그날의 일들은 잊을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았다.

‘일곱번째 밤’, 여섯번째 밤 이후에 몇년만에 찾아온 마지막 밤.

또다시 인간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인간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PROJECT_NoA SCENARIO

#어느 폐허

마지막 악마가 나타난지 7년의 세월이 지났다.

살아남은 인간들은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무리를 형성했다.

‘나’ 역시도 살아남은 인간들 중 한명이었다.

물론 지금은 베이스 캠프를 나와 폐허에 있지만.

플레이어 : (숨차는 목소리로) “이 째 이었던 것 같은데...”

#베이스 캠프

몇일 전, 오랜만에 베이스 캠프를 찾아온 떠돌이 행상인 ‘아비게일’에게서 참치캔을 사며 들었던 말이 있었다.

아비게일 : (긋속말 하며) “얼마전에 저기 서쪽 폐허에 갔는데...귀신을 본거같아...”

그 말에 잠을 못이뤘던 것 같다.

귀신이 무서워서?

아니다 난 오히려 그게 사람일까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당연히 사람이 무서운건 아니고, 걱정이 되었다.

소방관이었던 우리 아버지는 옛부터 타인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었다.

경찰이었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늘 자신의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셨다.

악마가 나타났던 날에도 부모님은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타인을 위해 희생하셨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일까, 나 역시 다른 사람을 구하는게 몸에 밴 듯 했다.

위험한건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신경이 쓰여서 결국 베이스 캠프를 나왔다.

아비게일이 대충 그려준 지도, 그리고 권총 한자루.

이렇게 나 홀로 악마들의 소굴에 발을 들였다.

#어느 폐허의 건물

플레이어 : (숨차는 목소리로) “여...여기다!”

입구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건물의 잔해를 헤집고 나가니, 어느덧 어둠으로 가득한 건물 내부에 들어올 수 있었다.

공포로 다가오는 정적을 밟고 나아갔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악마를 두려워하며 천천히 나아갔다.

허나 꼭 긴장이 풀릴때 즈음이면 안좋은 일이 들이닥친다.

코너를 꺾자마자 어둠의 악마와 마주쳤다.

알 수 없는, 그러나 마치 공과같은 짐승처럼 생긴, 어둠의 악마와 눈이 마주쳤다.

온 몸의 소름이 끼치고, 손끝마저 움직일 수 없는 공포감이 들이닥쳤다.

그런 나와는 반대로 어둠의 악마는 고민의 순간도 없이 거대한 손을 들어올렸다.

PROJECT_NoA SCENARIO

그리고 나를 부숴버릴 것처럼 그 거대한 손으로 내리쳤다.

플레이어 : (놀라는 목소리로) “으...으악!”

다행히 내 몸은 지금껏 악마의 세계에서 버텨온 본능이 잘 작동해주어 악마의 공격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잘 피한 내 몸과 달리, 악마의 손이 닿은 지면은 악마의 공격을 버티지 못했다.

플레이어 : (놀라는 목소리로) “이건 아니잖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신을 차린건 온몸의 뼈가 부러진 것 같은 아픔이 찾아왔을 때였다.

고개를 올려보니 생각보다 깊은 곳에 떨어진 듯 했다.

온전히 정신이 깨었을 때, 함께 떨어진 악마가 생각이 났다.

고개를 돌리니 파편에 깔린 어둠의 악마는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

플레이어 : (겁먹은 목소리로) “죽은...거겠지...”

다리를 절뚝거리며 악마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건드려보니, 확실히 죽은 듯 했다.

안심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 붙은 길을 알리는 희미한 빛, 그 외에는 마치 깊은 밤처럼 잘 보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벽에 손을 짚어가며 부숴진 듯한 몸을 지탱해 앞으로 나아갔다.

또다시 찾아온 고요함, 비정상적으로 고요한 이 순간은 오히려 공포로 다가왔다.

플레이어 : (힘들어하는 목소리로) “제발...어디있는거야...”

한참을 벽을 짚고 걸어갔지만,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비게일이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너무 고요하다.

이상하게도 이런상황에서 ‘나’는 안심을 하고 있었다.

차라리 이런 위험한 곳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 위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하니까.

마침내 방향을 알리던 벽의 빛이 끝나고, ‘나’는 밤속에 홀로 서있는 나그네가 되었다.

플레이어 : (한탄하는 목소리로) “아무도...없는건가...”

그 순간 어둠의 저편에서 ‘나’를 바라보는 잔인한 시선이 느껴졌다.

숨을 죽이고 천천히 허리춤의 권총을 잡아들었다.

그리고 시선이 느껴지는 곳으로 총구를 겨누었다.

그곳에서 보았다. 나를 노리는 수많은 눈. 그리고 이빨.

군대 한 소대가 와도 잡을까 말까한 수많은 악마들이 내 고기를 원하는 것이 느껴졌다.

플레이어 : (한탄하는 목소리로) “하하...이건...안되겠는데...”

PROJECT_NoA SCENARIO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다.

몇일을 굶은 악마의 소리가, 나를 덮쳐왔다.

나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지만 곧 내가 짊어온 차가운 벽에 등이 맞닿았고,

그 차가운 온도가 내 온 몸을 타고 흘렀다.

플레이어 : (겁먹은 목소리로) “어머니...아버지...”

달려든다. ‘나’에게.

눈을 질끈 감고 벽을 짚었다.

허나 무슨 일인지 내 등에 느껴지든 ‘벽’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플레이어 : (놀라는 목소리로) “또 뭐야!”

갑작스럽게 지탱하던 벽이 사라지고 무게중심이 뒤로 몰린 ‘나’는 그대로 쓰러졌다.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문’, 들리는건 문 너머의 악마들의 비명과 벽을 치는 굉음이었다.

플레이어 : (놀라는 목소리로) “여기로...들어온건가...?”

천천히 몸을 돌려 주변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만났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첫 ‘천사’를.

#아다마리스의 연구소

플레이어 : (놀라는 목소리로) “당...신은?”

아름답다.

첫 인상은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희미한 빛 속에서 한 여성이 길가다 고양이를 본듯한, 약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서있었다.

악마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건 신경쓰이지 않을 정도로 내 앞에 있는 ‘천사’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이성을 잃을 정도였지만, 다행히 내 이성은 잘 견뎌냈다.

플레이어 : (다급한 목소리로) “이럴때가 아니지!”

‘나’는 여성에게 다가갔다.

가까히 갈 수록 눈부신 외모가 더욱 돋보였지만, 지금은 이 사람을 먼저 탈출시키는게 먼저였다.

플레이어 : (다급한 목소리로) “여기 오래 있었어요? 미안해요! 지금 악마들이 밖에 있어요!”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당신이...”

플레이어 : (다급한 목소리로) “여기 길은 잘 아시죠? 먼저 밖으로 도망쳐요. 제가 이곳에 잠시 머물러 있을게요!”

아름다운 여성은 ‘나’를 신기해하는 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다.

PROJECT_NoA SCENARIO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악마들을 막으실건가요? 인간인 당신이 어떻게...?”

플레이어 : (당황한 목소리로) “그거야...”

여성은 내 손에 들려있는 권총 한자루를 지긋히 바라보더니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플레이어 : (진정하는 목소리로) “걱정마세요. 곧 뒤쫓아 갈게요.”

‘나’는 최대한 지금 느껴지는 공포를 숨기고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손 끝의 떨림은 참을 수 없었지만, 내 앞의 여성을 진정시킬 방법은 그것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물론 ‘나’야 죽겠지만 후회는 없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던 부모님처럼, 나 역시 멋있게 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이브 : (조용한 목소리로) “당신이라면...”

플레이어 : (당황한 목소리로) “뭐해요! 빨리 먼저 나가세요!”

여성은 천천히 방안의 어둠속으로 걸어들어갔다.

플레이어 : (안심한 목소리로) “이제...갔나...”

‘나’는 뒤를 돌아 문을 향해 권총을 겨누었다.

빌어먹을 손끝의 떨림이 진정되지 않았다.

이제 곧 멋있게 희생한다는 생각과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공포가 뒤섞여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고갔다.

그 순간 나의 등 뒤에서 엄청난 빛이 터지듯 흘러나왔다.

그리고 나는 마치 이끌리듯 뒤를 돌았다.

알수없는 과학 기구들과 사람 하나는 거뜬히 들어갈 수많은 캡슐들.

그리고 그 앞에 서있는 아까의 여성이었다.

플레이어 : (놀란 목소리로) “어...아...?”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퍼스트시여...저희를 구원해주시겠어요?”

플레이어 : (놀란 목소리로) “무슨...소리에요?”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저는 이브.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저희를 구원해주시겠어요?”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이브라는 여성의 말을 납득하기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 방대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플레이어 : (놀란 목소리로)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저희는 NoA. 퍼스트인 당신이 구원해주신다면, 당신의 길을 막는 악을 정화하겠습니다.”

점점 등뒤의 문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다.

이브의 말을 들을 것인지, 이대로 이브의 말을 알지 못한채로 죽을 것인지.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일단 내 생각은 하나였다.

플레이어 : (놀란 목소리로) “알겠으니까!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어!”

PROJECT_NoA SCENARIO

이브는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나의 팔에 손목 시계와 같은 무언가를 걸어주었다.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퍼스트시여. 부디 우리의 방주를 열어주세요.”

플레이어 : (소리치며) “으으! 열려라 방주!”

뻔뻔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말 아무 일도.

플레이어 : (소리치며) “아무 일도 안일어나잖아!”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아...동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간절함을 담아주세요. 저희를 구원시켜줄, 당신의 의지를 담아주세요.”

이브에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분명 ‘나’의 길을 막는 ‘악’을 정화시켜준다고 했다.

플레이어 : (간절하게) ‘제발. 악마들을 처리해줘. 나와 이브를 구해줘. 부탁할게!’

플레이어 : (소리치며) “내 부름에 답해줘!”

그 순간, ‘나’와 이브 앞에있던 캡슐 중 3개가 밝은 빛을 바래며 가동하는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잠들어있는 듯 한 세명의 소녀가 눈을 뜨고 천천히 일어나왔다.

NoA 1 : (기지개를 피며) “하음~. 겨우 일어난건가~?”

NoA 2 :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듯 하며) “우호! 공기가....탁하네?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NoA 3 : (천천히 일어나오며) “아아...어떤 왕자님이 저를...”

동시에 일어나온, 이브가 설명한, **NoA**가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NoA 1 : (비웃는 듯 하면서) “오빠야? 나를 부른게?”

NoA 2 : (밝게 웃으며) “흐음...악해보이지만...일단은 합격점 줄게!”

NoA 3 : (얼굴을 붉히며 미소짓는다.) “아아...왕자님...”

눈앞의 상황이 하나도, 정말 1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런 나에게 이브가 다가왔다.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현재는 동력이 부족해 3명의 **NoA**가 한계이지만, 지금은 이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디 전투 명령을 내려주세요.”

뒤를 돌아왔다.

문의 틈이 벌어져 악마들의 눈이 보인다.

이제 정말 이브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할 것 같았다.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퍼스트여. 침착하세요. 당신의 팔에 있는 ‘메시아’로 현재 세명의 **NoA**에게 모두 전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PROJECT_NoA SCENARIO

직접적인 전투 명령은 한명씩에게만 가능해요. 저희는 당신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레이어 : (당황해하며) “그치만...재네들이 싸울 수 있다고?”

눈앞에 있는 소녀들에게 도저히 싸워달라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소녀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브는 나의 고민을 눈치챈 듯 했다. 그리고 천천히 ‘나’의 두 손을 잡아주었다.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저희를 믿어주세요”

결국 결심이 섰다.

내 앞에 있는 소녀들, NoA들을 믿어보기로 했다.

드디어 문이 부숴지고 악마들이 하나 둘씩 연구실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수많은 눈과 이빨들이 우리를 향해 있었고, 마침내 나는 명령을 내렸다.

플레이어 : (소리치며) “NoA 2! 재네들을 박살내줘!”

NoA 2 : (밝게 웃으며) “알겠어 퍼스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순식간에 NoA 2가 악마들에게 다가갔고, 일격에 악마들을 박살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NoA 2는 망설임 없이 악마들을 계속해서 박살냈다.

그러던 중 NoA 2의 등 뒤로 악마가 다가가는 것을 보았고, 놀란 마음에 ‘나’는 소리쳤다.

플레이어 : (소리치며) “조심해! 도와줘 NoA1!!”

NoA 1 : (귀찮아 하는 듯 하며) “알겠다구”

그 순간, NoA 2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NoA1이 나타났다. 신비한 광경에 놀랄 틈도 없이 NoA1 이 악마의 공격을 받아냈다.

플레이어 : (놀라며) “저건...?”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저희는 안전상의 이유로 1명의 NoA만 전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들은 교대로 전투를 진행하게 되죠.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oA 1 이 연구소 입구의 악마들을 처리하고, 이브는 컴퓨터로 보이는 곳에 가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문 앞의 악마들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허나 주변에는 아직 악마들이 많이 있군요. 전부 처리할까요?
이대로 두면 언젠가 퍼스트에게 방해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브의 말대로, 악마는 없는 편이 좋다.

처음으로 눈앞의 악마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그녀들에게 어렴풋이 ‘희망’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나’를 바라보는 NoA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플레이어 : (소리치며) “부탁할게! 부디 악마들을 없애줄래?!”

이브는 미소를 지었고 다른 NoA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NoA 1 : (미소를 지으며) “후훗. 그렇게 말해주면 못해줄 것도 없고!”

PROJECT_NoA SCENARIO

NoA 2 : (밝게 웃으며) “히히! 걱정말라구!!”

NoA 3 : (얼굴을 붉히며 “아아...왕자님...당신의 명령대로라면”

곧 나에게 공 모양의 물체가 다가와 내 주변을 맴돌며 날아다녔다.

플레이어 : (놀라며) “우왁! 이...이건 뭐야?!”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이 아이는 ‘에버’...퍼스트의 안전을 위해 밖에서 퍼스트의 명령을 **NoA**들에게 전달해줄 아이입니다.”

에버 : (밝은 기계음) “위웅!!”

NoA들과 에버가 연구소를 나섰고 나는 이브의 안내에 따라 이브가 바라보던 컴퓨터 앞으로 이동했다.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NoA**에 대한 전투 명령은 퍼스트님을 통해서만 가능하세요. 에버를 통해 이곳에서 원격으로 지휘해 주시면 됩니다.”

플레이어 : (숨을 고르며) “알겠어...요”

주변의 악마들이 정리되니, 마음이 진정되고 이성이 찾아왔다.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미소지으며) “저희는 당신의 명령에 따릅니다. 부디 말씀은 편히 해주시면 됩니다.”

플레이어 : (진정하며) “알겠어. 그럼...아아...내목소리 들려?”

NoA 1 : (귀찮은 목소리) “으응~ 잘 들려~”

NoA 2 : (밝게 목소리) “이야! 잘들려!”

NoA 3 : (녹아내린듯한 목소리) “아아...왕자님...당신은 목소리마져...”

플레이어 : (진지한 목소리로) “그럼 지금부터 명령을 내릴게. 이런건 처음이지만. 잘부탁해!”

NoA 1 : (귀찮은 목소리) “알겠어~”

NoA 2 : (밝게 목소리) “오우!”

NoA 3 : (녹아내린듯한 목소리) “알겠습니다...왕자님...”

그렇게 ‘나’는 노아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연구소 주변의 악마들을 정리해갔다.

처음 내리는 전투 명령에 어설픈 명령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녀들의 몸놀림과 능력은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기에 문제없이 악마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 주변 정리가 끝날때까지 그녀들의 강함은 터무니 없을 정도였다.

그런 그녀들의 모습에 담긴 의문을 이브에게 물어보기로 하였다.

PROJECT_NoA SCENARIO

플레이어 :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저기...이브?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는거야?”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저희는 인간분들이 부르는 ‘악마’라는 존재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플레이어 : (놀라는 목소리로) “그럼?! 너희도...?!”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단,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는 차원 너머의 힘을 불러온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플레이어 : (놀라는 목소리로) “그게 무슨 말이야?!”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차원 너머의 존재하는 혹은 존재했었던 강자들의 힘, ‘글로리아’만을 가져와 저희의 베이스에 담아내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강인한 힘을 가진 자들의 클론이라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 :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럼 NoA들의 성격이나 기억들도...?”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어느정도 가져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저희는 저희가 NoA라는 자각을 하고있습니다. 악마를 처리해야한다는 저희의 임무도 말이죠. 그러니 저희를 전투 병기 정도로만 생각해...”

플레이어 : (소리치며) “그건 아닌거같아! 너희도 인간이랑 다르게 없는데?!”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미소지으며)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NoA들도 감정이란 것은 있기 때문에 퍼스트께서 신경써주신다면 저희도 더할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NoA 1 : (귀찮은 목소리) “우우~ 귀찮아~”

NoA 2 : (밝게 목소리) “이야! 재밌었어!”

NoA 3 : (녹아내린듯한 목소리) “아아...왕자님...제가 돌아왔답니다...”

플레이어 : (반기는 목소리) “응! 고마워! 고생많았어!”

‘나’는 NoA들에게 그녀들의 상태를 살폈다.

‘나’의 실수로 몇번의 상처를 받은 듯 했지만, NoA들은 가벼운 상처인양 별로 신경쓰지 않는 듯 했다.

NoA들의 안위를 살피던 나에게 이브가 다가왔다.

이브 : (차분한 목소리로) “퍼스트님. 두가지 보고가 있습니다.”